

4인가족의 수납물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납공간 계획

[A study on the Quantitative Change of the Stored items of
Apartment Residents and the Storage Space]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박영순/박사과정 윤지영

□연구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부수되는 소유 물품의 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공간이 한정된 아파트에서는 물품의 수납과 보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수납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의 대부분이 수납 공간의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불박이장이나 드레스룸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김문선, 1988; 김대년, 1990; 박영순, 1991; 인테리어무크, 1992). 따라서 효율적인 수납공간의 확보는 사람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정리정돈에 사용되는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택내 수납공간의 규모나 수납장의 내부구획을 하는데 있어서 수납물량의 파악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어떤물품을 어느정도 수납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수납공간의 규모 및 디자인은 달라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평균수납물품의 양을 파악하고, 주택규모와 거주자의 생활주기에 따른 수납물량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수납공간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995년 5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한후 6월-7월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가족구성체의 기본이 되는 4인가족으로 하였고 평형별로 50가구씩 총 250가구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된 수납연구에서 분류한 수납물품에 의거하여 구성한후, 실내디자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작성되었다. 실제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지의 내용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훈련된 조사자들이 각 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 기록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1. 평형에 따른 수납물량의 비교

전체조사대상을 평형에 따라 25평 미만, 25-34평, 35-44평, 45-55평, 55평 이상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소유물품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의류는 25평 미만의 경우는 평균 49벌정도이나 55평 이상이 되면 72벌로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부인의 의류는 25평 미만의 경우는 평균보유수가 57벌이나, 55평 이상이 되면 102벌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복의 경우도 25평 미만과 55평 이상을 비교하면 1.5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류에 있어서는, 남자자녀의 경우는 평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여자자녀의 경우에는 평형이 커질수록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침구류는 의류의 경우처럼 큰 증가율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역시 평형에 따라 보유정도는 증가하여 25평 미만의 경우 부부침실의 침구가 12채 정도였으나 55평 이상이 되면 15채 정도로 증가하였다. 신발류의 보유정도도 25평 미만에서는 27켤레에 불과하지만 55평 이상으로 그 평수가 커지면 53켤레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평형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수량도 그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물품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의류, 남편과 부인의 잠화, 그리고 가족 신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생활주기(만자녀연령)에 따른 수납물량의 비교

만자녀의 연령을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24세, 2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보유물품의 양

을 살펴본 결과 만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가정의 보유물품의 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의류의 경우는 만자녀의 연령이 7세 이하인 경우는 평균 45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만자녀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는 평균 68벌을 보유하고 있어 1.5배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인의 경우는 만자녀 연령이 7세 이하인 경우 평균 42벌을 보유하고 있으나 만자녀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는 평균 83벌을 보유하고 있어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복의 경우, 남편과 여자자녀의 한복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부인과 남자자녀의 한복도 그 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각 가정에서 명절에 입기위해 몇 벌 정도의 한복만 준비할 뿐 평상시에는 거의 한복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녀의 경우 만자녀가 7세 이하일 때와 25세 이상일 경우를 비교하면, 남자자녀의 의류는 38벌에서 54벌로, 여자자녀는 32벌에서 82벌로 증가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남자의 경우는 1.5배, 여자의 경우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신발수도 만자녀의 연령이 7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켤레이나 만자녀의 연령이 25세 이상이 되면 55켤레로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수납물량의 양과 종류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또 각 가정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택의 수납공간을 계획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형에 따른 수납물량을 살펴보면 부부의류의 경우 평형이 증가할수록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양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아파트 내부의 의류수납용 볼락이장의 규모도 커져야 한다. 침구류의 경우 그 소유량의 증가가 양복류나 신발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트류는 증가하지만 요의 경우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수록 우리의 생활양식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잡화와 신발의 경우 역시 평형이 증가함에 따라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이 여유로워짐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게되고 다양한 종류의 잡화 및 신발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발장 계획시 할애하는 면적도 평수에 비례하여 늘어나야 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수납물량을 살펴보면,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과 25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살펴보면 부부양복류는 1.5-2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경우 여자자녀가 남자자녀보다 많은 의복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주기에 따른 증가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침구류는 부부침실의 시트는 증가하지 않으나 요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부모의 경우 요와 이불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자녀실은 얇은 이불과 시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침대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침실은 요와 이불을 위한 수납공간이 필수적이며 자녀실의 경우 간단한 침구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계획이 바람직하다. 신발류의 경우 2배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자녀 구두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므로 신발장계획시 가족별로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평형에 따른 수납물량의 변화와 생활주기에 따른 수납물량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평형이 커질수록, 또 가족생활주기가 높아질수록 부부의 의류, 잡화 및 가족신발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류는 가족생활주기가 높아질 경우에만 남녀자녀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의류의 양이 증가하며 따라서 자녀실의 수납공간은 성장에 따른 수납물량의 증가를 고려한 가변성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나타난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가족의 평균 수납물량에 기초하여 각 실별 수납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안을 제시한다(OHP 참조).